

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중국
	대학명	연태대학교
파견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2월	
프로그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규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 파견대학 수학 전공: 중어학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은 한국에서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개강하기 전, 유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위챗으로 유학생 단체방을 만들어주십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께서 보내 주시는 유학생 보험을 반드시 구매해야한다고 하셔서 1년짜리 보험을 구매했습니다. 보험 가격은 약 800元 정도 했고,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바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중국 학생비자에는 X1,X2 비자가 있습니다. X1비자는 1년동안 중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도착하여 거류증을 신청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X2는 180일동안 유효하며, 중국에서의 학업을 연장하고 싶다면 기간 내, 한국 또는 다른 지역을 가서 비자 연장을 해야합니다. 또한 이 비자는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중국에서 한번 출국하면 이 비자로 다시 입국하지 못합니다. 또한 X2비자는 거류증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만약, X1비자를 발급받았다면 현지에 도착해서 30일 이내에 거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류증을 발급받기 전, 학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때에도 현금으로 약 400元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연태대학교는, 단체방을 통해 거류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받는 건강검진과 비슷하게 진행되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동행해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후 저는 개인적으로 출입국 관리소 (山东省烟台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 JW202, 사진과 현금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챙겨갔지만, 내부에 따로 구비해둔 기계로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거류증을 발급할 때 신청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고 하셔서 미리 200-300元정도의

현금을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거류증이 발급이 되고, 날짜에 맞춰서 찾으러가시면 됩니다. 수령시에는 별다른 준비물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 항공권이 있습니다. 트립닷컴이 학생항공권 항목이 누락되지 않고 명확히 표시되며, 서류 확인 등 일처리가 빠르고 원활하게 되어 이 어플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학생항공권을 구매하면, 위탁 수화물을 한개를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학생항공권은 선구매가 가능하고 서류는 3일 이내에 JW202 또는 비자 사본을 어플 내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중국은 한국보다 수도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면대와 샤워기 필터를 넉넉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로션이나 화장품은 한국에서 모두 구비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자체 브랜드 보다는 외국 브랜드, 특히 한국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정품이 아닌 것들도 파다하기 때문입니다. 세제, 샴푸, 휴지와 같은 생필품은 중국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품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오셔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향수나 디퓨저 같은 향이 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지않고, 향의 종류도 한국보다 적거나 이질적인 향이 많습니다. 섬유탈취제나 디퓨저를 평소에 사용하신다면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식을 좋아하거나 향신료가 있는 음식을 잘 못드신다면 볶음김치나 장조림 등 여행용으로 나온 음식을 몇가지 챙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명사진은 학기초에 은행카드를 발급하거나 학교 등록을 할 때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니, 넉넉하게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옷가지나 침구류는 중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많이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불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소지하신 카드가 결제가 안되는 경우도 많고 이불을 파는 곳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저는 연태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습니다. 현지인 대다수가 보통화를 구사하지만 산둥 또는 연태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상 중에 선생님이나 중국 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儿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합니다. 이는 현지에서 몇 달간 살다보면 적응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번화한 도시는 아니지만,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분위기가 여유롭고 연태 시민들이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정겹게 대해줍니다. 중국의 교수님은 한국과 다르게 중,고등학교때의 선생님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학

생과 교수 사이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고 학생들이 선생님께 건의사항이나 컴플레인을 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긍정적으로 학생들 수업에 반영해주십니다. 중국은 대부분 QR코드를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거나 결제를 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현금을 받는 식당이 있지만, 가게 측에서 대부분 현금을 마련하지 않아서 잔돈을 주지 못한다는 안내와 함께 현금 결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하지만, 이는 식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 한 끼에 평균 10,000원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 중국에서는 평균 3,000원이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 음료와 디저트 가격이 한국의 1/3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식비는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입니다. 연태에는 시내버스만 존재했는데 환승은 할 수 없지만 버스요금이 1元밖에 하지 않아서 다른 동네로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중국 대학생은 전동차(电动车)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외국인도 공공 전동차를 탈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서 이를 타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동차 요금은 5분까지 1元, 그 이후로 1元씩 추가되는 방식)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처음 학교를 선택할 때 다양한 학교가 있었는데, 저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적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태대학교가 한국인 학생이 많이 없다는 정보를 듣고 주저없이 연태로 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옆에 바로 바닷가가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의 교환학생 과정을 거친 지금, 연태를 향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연태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이후, 국제교류본부에서 알려주신 사이트에 공항 픽업 신청란이 있었습니다. 연태대학교는 픽업이 가능한 특정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출국을 하였습니다. 도착하면 연태대학교 측에서 나온 관계자와 학생들이 저희를 인솔하여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픽업 날짜는 단 하루였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 버스를 타고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개인적으로 공항버스를 예매하여 학교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처음 타면, 학교 주변에 있는 공항버스 정거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도에 나오지 않고 정거장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20분동안 걸어야 하니 처음 연태로 학교를 간다면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학교에서 개강하기 전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선생님께서 한명씩 전화를 해서 비대면으로 테스트를 보았습니다. 어디 학생이고, 어떤 전공을 갖고 있는지 등 간단한 대답을 하면 됩니다. 테스트 이후 유학생 단체방에서 공지해주는 날짜와 장소에 따라 책을 수령하면 됩니다. 저는 1년동안 어학과정을 들었습니다. 어학과정의 경우, ‘한어종합, 한어듣기, 한어열독, 한어구어’ 네가지 과목은 필수적으로 들어야했습니다. 선택과목에는 HSK, 중국 비즈니스 수업 등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업을 수강합니다. 책을 구매할 때도 현금만 가능했고, 책 한권당 40-50元씩하여 약 200-300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업은 교실을 옮겨다니지 않고, 본교에서 배웠던 ‘한어중급’ 책을 중국어로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인 선생님들은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여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한과목당 약 2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선생님의 따라 교과서 범위의 과제를 내주시거나 작문 과제를 내주십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유학생은 학교 내 유학생 기숙사 또는 학생들은 외부에서 월세를 내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연태대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후 국제교류본부로부터 연태대학교의 안내서와 함께 유학생 전용 링크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기숙사를 먼저 신청하고 현지 도착 후 약 3600元를 사감선생님께 지불하면 됩니다. (이때 현금결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숙사가 안전, 시설, 가격적인 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는 한 방에 2명이 쓰고 1층에 계신 사감선생님들이 초반에 임의로 배정하십니다. (원하는 친구와 함께 방을 쓰고 싶다면, 사감선생님이 이를 반영하여 같은 방으로 배정하십니다.) 기숙사 내부에는 화장실, 에어컨,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화로는 준비되어있지 않고 기숙사 건물 자체에 주방은 따로 없습니다. 1층에 세탁실이 하나씩 있는데, 한 세탁실에는 세탁기 여러 대가 구비되어 있어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학교측에서 유학생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외부활동을 준비해줍니다. 연태박물관 견학, 중의학 체험, 월병 만들기 체험, 중국 향신료 공장 견학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비는 따로 없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유학생 단체방을 통해 통지합니다.) 이외에도 하계에는 유학생 운동회, 동계에는 유학생 문화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고 여러 중국인과의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춤이나 노래 대

회나 서예 대회도 진행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다양한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전문을 쌓는 경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초반에 반이 정해지면, 중간에 학생들이 바뀌지 않고 다른 반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업 듣는 학생들과 친분을 쌓게 될 것입니다. 유학생이 수업듣는 층 위에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중국인들이 있어서, 자주 유학생 층으로 내려와서 인사하곤 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위챗을 교환해서 연락하고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시기에 좋은 중국인 친구를 만나서 한국에 오기 바로 전날까지 시간을 함께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단순히 중국어를 향상시킨다는 목적 보다는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오가면서 느끼는 바가 크기 때문에 중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을 꼭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연태대학교 주변에는 큰 쇼핑몰 이외에 놀러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는 대학교 내에 있는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하고, 종종 중국인 친구를 만나고, 쇼핑몰에 가며 여가를 보내곤 했습니다. 학교 동문에 바닷가가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주변에 사는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찾습니다. 멀지 않으니 바다에 가서 노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국과 다르게 길가에서 장사하는 상인분이 많아서 여러가지 중국 음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대다수의 음식에 향신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연태에는 한식을 파는 음식점도 많았고 학생식당의 음식들이 맛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거라 생각합니다.

연태는 시내버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에서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알리페이’를 이용하여 전자 교통카드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연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烟台公交’라는 앱을 별도로 깔고 돈을 충전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아이폰의 경우, 중국 애플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烟台公交’를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먼 거리는 ‘DiDi’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파란 택시는 정해진 요금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가격을 부풀려 요구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어플을 이용하여 택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중국에는 크고 작은 명절이 많은데, 단기 휴교를 이용하여 평소에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많이 가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학기 중에 칭다오, 베이징, 톈진, 광저우 등을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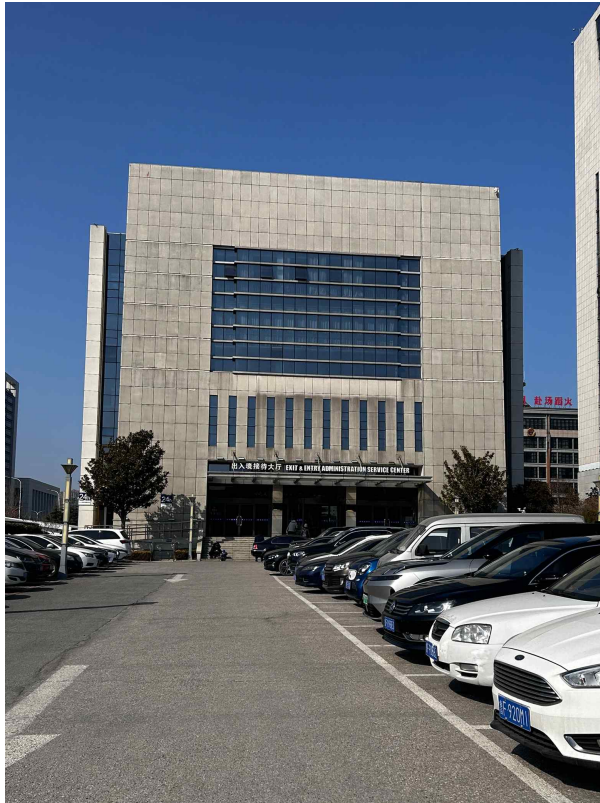
왔습니다. 연태에서만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것들을 여행을 통해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여러 지역을 한번에 여행하는 기회를 만들기 어려우니,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이라도 여행을 많이 다니길 바랍니다. 학생증을 가지고 있으면 할인되는 관광지도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즐거운 여행을 하길 바랍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지금 교환학생을 갔다 올지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살면서 외국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적어질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학문을 수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견문의 깊이와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교환학생을 가지 않으면 그 시간동안 한국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인턴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교환학생의 경험 또한 그것 못지 않게 뜻깊은 활동이기 때문에 적으면 반년 되도록이면 일년의 교환학생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진1] 연태국제공항에서 연태대학교로 갈 수 있는 공항버스



[사진2] 거류증을 신청하는 출입국 관리소 [사진3] 연태대학교 주변 풍경
(山东省烟台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사진4] 연태대학교 옆 해변도로

[사진5] 원: 기숙사, 왼쪽건물: 제8 학생식당



[사진6] 연세대학교 내 체육관



[사진7] 신도서관과 시계탑 사잇길



[사진8] 구도서관과 시계탑, 시계탑 앞 큰 호수